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인대학' 강의

출판산업의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 출판교육의 활성화문제가 심각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처럼 출판사의社内에서 이루어지는 徒弟식의 실무경험 전수가 앞으로도 계속 출판교육의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출판환경의 변화에 더 이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한편, D사, M사, H사 등이 '출판사관학교'라 하여 출판인 배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사내 교육이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인식의 자연스런 귀결로 교육기관의 절대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대학 및 각종 단체의 출판관계 강의들도 대폭 확대개선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다행히 이같은 출판계의 바람에 부응이라도 하듯, 내년 봄 학기부터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의 정보관리학과에 출판도서 전공과정이 새로 개설되는가 하면 H대, J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출판학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관계 강좌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출판학 관계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구전문대학의 인쇄과, 혜전전문대학의 출판과, 그리고 중앙대학의 신문방송대학원 등 세 곳이다. 내년 봄 개설되는 동국대학 정보산업대학원까지 합해도 모두 2개 전문대와 2개 특수 대학원에 불과하다. 1967년 安春根씨가 이화여대 대학원 도서관학과의 한 강좌로 '출판개론'을 처음 강의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20여년 동안의 우리 출판교육의 발전속도는 매우 더딘 셈이다.

대학에서 정식으로 출판을 교육한 최초의 교육기관인 신구전문대학은 1978년부터 인쇄과 안에 출판전공과정을 따로 둔 이래 8회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혜전전문대학은 독립된 과로서는 최초, 유일하게 82년 출판과를 설치,

출판업계의 규모나 발전속도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 출판교육은 그 강좌의

수나 내용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4년제대학의 출판학과

개설을 비롯, 업계 차원에서

상설 또는 부설 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모두 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교육적 실효가 출판계에 흡수되기에는 학계나 업계 양쪽에 다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출판연구소 金義洛국장의 말이다.

“학교쪽의 문제로는, 전문대학이 갖는 한계 때문에 이론 및 실기과목의 연결과 집중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업연한이 짧다보니 출판일반의 이론적 바탕이나 실무적 자질의 습득이 모두 어중간하게 끝나버리죠. 반면, 업계쪽의 문제로는,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교육받은 초보자’보다는 현장에서 근무경험을 쌓은 ‘교육받지 않은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죠.”

81년 현직 종사자의 재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은 현재 4년제대학에 학과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유일한 출판관계 고급인력 양성기관이다. 그동안 석사만 해도 16명을 배출했고, 연구과정까지 통틀면 수료자의 대부분이 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학문의 심자료’라는 출판학의 속성에 걸맞게 광고, 신문방송, 시청각교육, 연극영화 등과의 관련 아래 출판학의 통합학문으로의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직 종사자의 재교육에 중점을 둔 특수대학원이라는 한계,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우리 출판학계의 역량이 충분히 비축돼 있지

출판학講座, 늘어야 한다

대학 '학과' 설치, 커리큘럼 개선 등 문제점 많아

못한 데 따르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학부에 학과가 없다보니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대부분이 외래강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난점이 있다.

내년 봄 개설되는 동국대학 정보산업대학원의 정보관리학과 출판도서전공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보화시대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습득케 한다는 대원칙 아래 컴퓨터, 통신, 언론 등과의 융합과 확산이란 측면에서 출판학의 위상을 자리매김한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비정규교육기관의 강좌는 5~6개 가량

그밖에, 독립된 학과나 전공과정이 아닌 '강좌'가 10여 군데의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신문방송학과 및 도서관학과 등에 개설돼 있고, 서강대, 인하대 등의 경우처럼 교양과정의 일환으로 강좌를 개설했던 곳도 있다.

한편, 1957년 서울신문학원에서 역시 安春根씨가 처음 출판론을 강의하면서 시작된 비정규교육기관의 출판관계 강좌는 현재 대략 5~6개, 디자인, 광고 기법 등을 가르치는 상업사설학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른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인대학'이다. 1973년부터 단기과정으로 실시하던 편집연수강좌가 81년에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편집인대학으로, 그리고 다시 출판인대학으로 개명돼 현재 7기의 수료생을 내고 있다. 출판 이론과 실무 전반에 걸쳐 34개 강좌를 개설, 대개 경력이 적거나 거의 없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영업책임자 세미나를 따로 개설하여 6월 중에 2기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 한국잡지협회의 잡지대학, 한국편집아카데미의 편집아카데미, 한국사보연구소의 사보학교, 그리고 동아 및 중앙일보사의 문화센터에서 출판관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교육의 중점은 대개 편집의 실무를 익히는 데 두고 있고, 출판보다는 잡지 위주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취업에 있어서도 '알선'에 그치고 있어 업계와의 연계가 아직은 긴밀하지 않은 것 같다.

업계 스스로도 인재 길러야

위에서 보듯, 현재 우리의 출판교육기관은 그 수에서나 교육의 내용 등에서 업계의 규모와 앞으로 예상되는 업계발전의 속도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4년제대학의 출판학과 설치가 시급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학에 출판학과가 설치된 곳이 소련, 브라질, 인도, 그리고 최근의 중공 등에 불과해, 과연 출판학이 대학에서 강의될 성질의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간에 일종의 서열관계가 암암리에 상존해 있는 우리나라 제도교육의 속성상, 4년제 정규대학에서의 출판학과 설치에 출판학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격상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교육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교육내용의 충실화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60년대 후반, 한양대학의 출판학과 개설신청과 출판협회의 출판학과 설치를 위한 로비가 '서울에서의 인문사회계 학과 증설 불가'라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제쯤이면 출판진흥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긴한 때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계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한국출판협회의 安春根회장은 출판관계 단체나 조직의 상설 및 부설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대학에 대해 출판학과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건의하는 한편으로, 업계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문쪽의 언론연구원이나 일본의 에디터스쿨 같은 것이 좋은 보지요. 말하자면, 대출판사들의 공동출자로 출판교육기관을 창설한다든가, 출협의 출판인대학을 상설기관으로 독립시켜 운영을 내실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오히려 출판학과 설치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수준은 결국 업계의 수요 창출에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출판교육의 내용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개 지금까지의 출판교육은 취재, 편집, 제작 등 책을 만드는 과정에만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책에 담을 내용에 대한 문헌적 교양과, 저자에서 독자에까지 이르는 출판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좀더 교육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강철주 기자